

이제는 '무쌍'의 시대 '연기파 3인방' 뜬다

(쌍꺼풀 없는 눈)

요즘 드라마와 영화, 연극무대까지 누비는 '맑은꼴' 삼총사가 있다. 쌍꺼풀 없는 눈에 크지 않은 이목구비의 동양적인 얼굴을 가진 세 사람은 모두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tvN '치즈인더트랩'의 김고은(25)과 SBS TV '육룡이 나르'

샤'의 한예리(32), 영화 '검은사제들'의 박소담(25)이 그 주인공이다.
최근 다양한 작품에서 종합무진 활약하는 똑 닮은 세 사람 덕에 시청자는 "같은 사람 아니었어?"하며 혼란을 겪기도 한다.

맑은꼴 여배우 3인방 김고은·한예리·박소담

◇ '은교' 그림자 떨친 김고은
21살의 나이에 영화 '은교'의 여주인공으로 강렬하게 데뷔한 김고은은 최근 tvN '치즈인더트랩'으로 '은교'의 그림자를 지우는 듯하다.

김고은은 2012년 '은교'에서 수위 높은 노출을 감수하며 청초한 얼굴의 열일곱 여고생 은교를 연기했고 그해 각종 신인상을 휩쓸었지만 환호를 뒤로 하고 학교로 돌아갔다. 그는 오랜 시간 '은교'로 불렸다.

독립영화와 연극 무대를 통해 '내공'을 쌓은 그는 2014년 영화 '몬스터' '차이나타운' '헛내, 칼의 기억'에 이어 2015년 '성난변호사'에 출연하며 다시금 대중에게 존재를 알렸다.

'치즈인더트랩'에 그가 흥실 역으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땐 웹툰 속 흥실과의 싱크로율 논란이 일기도 했다. 흥실을 따라하는 동기가 있을 정도로 예쁘장한 것으로 표현되는 웹툰 속 흥실에 김고은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소 '성형하지 않길 잘했다'는 소신을 밝힌 김고은은 이런저런 말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평범한' 얼굴로 '생활연기'를 펼쳐 찬사를 받고 있다. '실눈 뜨고 다니는 애'라고 표현되거나 '야 눈 때! 눈'이라는 구박 아닌 구박도 듣지만 작은 눈은 오히려 흥실만의 매력으로 다가온다.

3월엔 윤여정과 함께 출연한 영화 '계춘할망'의 홍보활동을 통해 팬들과 계속 만날 예정이다.
◇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섭렵한 한예리
SBS TV '육룡이 나르샤'에서 공양왕의 연인이자 객역인 척사광 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한예리는 주로 스크린에서 활약하던 배우다.

영화 '코리아'에서 북한의 탁구선수 '순복'을 연기해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받았고 영화 '남

김고은
은교에서 흥실로 완벽 변신 인기

한예리
날카로운 무사부터 예능까지 섭렵

박소담
영화·드라마·연극까지 종합무진

쪽으로 뛰어 '환상속의 그대' '동창생' '해무' '극적인 하룻밤' 등에 출연했다. 드라마 출연은 2013년 단막극인 KBS 드라마스페셜 '연우의 여름', 지난해 MBC에브리원 '상상고양이' 정도였다.

'육룡이 나르샤'에선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여인이지만 칼을 들었을 때는 날카로운 눈빛의 무사로 변신해 눈길을 끈 그는 곧장 MBC TV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가 아닌 한국무용을 전공한 그는 '마리말'에서 부채춤을 선보이고 과거 입시 준비생일때 촬영한 증명사진을 공개하면서 "선생님이 매일 다이어트 하라고 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불살만 안 빠졌다"고 털어놓는 등 털털한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옛날 얼굴이지만 1984년생으로 32세. 비교적 뒤늦게 주목받은 셈이다.
북한 탁구선수, 조선족(해무) 등의 역할을 맡은 탓에 포털사이트에 '한예리 탈북'이 연관검색어에 올라왔다.

올해는 안성기, 조진웅, 손현주, 권율 등과 함께 출연한 영화 '사냥'의 개봉도 앞두고 있다.

◇ '도화지 같은 얼굴' 박소담
영화 '세씨봉' '베테랑' '사도' '검은사제들'에 드라마 온스타일 드라마 '처음이라서' 여기에 최근 막을 올린 연극 '렛미인', 상반기 방송 예정인 드라마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까지, 최근 순풍에 돛단 듯 영화와 드라마, 연극 무대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약 중인 이 배우는 25살의 박소담이다.

이름을 듣고도 얼굴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베테랑'에서 조태오(유아인 분)와 함께 그의 환승파티에 왔다. 험한 일을 당한 그 여자, '사도'에서 종아리를 맞던 후궁, '검은사제들'에서 악령에 빙의된 소녀를 떠올리면 된다.

화려한 파티컬부터 약력에 섞인 고등학생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할 수 있는 건 표정이나 스타일링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그의 외모 덕이다.

박소담은 최근 MBC TV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유승환 감동담이 '도화지 같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나는 내 쌍꺼풀 없는 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성형으로도 만들 수 없는 눈이라 생각돼서 배우로서의 개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60대 1의 경쟁을 뚫고 연극 '렛미인'의 주인공이 된 그는 "영화 작업을 먼저 시작하게 됐지만, 학교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처음 배웠다"며 "관객을 직접 만나는 떨림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고 다부진 각오를 내놨다.

3월엔 산 속 수녀원의 수녀 마리아로 변신, 영화 '설행-눈길을 걷다'로도 관객을 만난다. '연합뉴스



박소담

한예리

김고은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토크쇼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예 끝단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덕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⑨ 00 신문이여 들리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드	00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40 지구촌 뉴스	45 기본 좋은 날	00 중계방송 박근혜 대통령 국정연설 50 SBS 뉴스
⑪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	30 UHD특집 번방당 거문방 55 안녕 우리말	00 1대100(재)		00 덕터 365(재) 05 인문학적 우리말 만든 비밀
⑫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덕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①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빛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20 문화사색(재)	
② 30 직언직설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푸리가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③	00 안녕 우리말(재) 0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5 튼튼생활제조사(재)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퓌? 퓌!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④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PD의 요리인류기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스페셜 30 고고 다이노
⑤ 3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덕터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⑦ 0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7 30 시사현장 매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⑧ 10 개밥주는 남자(재)	25 우리집 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⑨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스포츠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 드라마 <무림학교>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⑪ 00 충격 실화극 씨인(재)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걸작다큐 우리가 몰랐던 달의 비밀	10 우리동네 예제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⑫ 30 아내가 뽀났나 남편발상(재)	30 독립영화관 <미스터 노비디>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실론의 전설, 스리랑카를 가다>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재)	19:50 극한직업
05:30 건강안아침	12:00 EBS 정오 뉴스	16:30 코코코 다코(재)	20:40 다큐 오늘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6:45 덩동영 유치원1~3(재)	<매주 띄우고 두부 풀이>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3:05 지식채널e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0:50 세계테마기행
07:00 레이디 비그	13:10 프리덤 인	17:45 로보카 폴리	<남미의 보석, 볼리비아 탐방기>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	21:30 한국기행
07:45 로보카 폴리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8:05 캐니멀	<내 고향 남쪽바다>
08:00 덩동영 유치원1~3	14:00 허풍선이 과학쇼	18:2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2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코코코 다코	14:30 두바두바 눈보리	18:25 두키 탐험대	<공부의 재구성>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3	22:45 다큐영화
09:40 토크쇼 부모 <이슈 N 맘>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8:45 신동방송 공룡 슈퍼	<귀의 인생>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8:55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4	23:35 세계검문록 아틀라스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0 모피와 친구들	19:00 레이디 비그(재)	24:05 지식채널e(재)
11:10 다큐 오늘		19:30 EBS뉴스	24:10 EBS 인문학 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6일(음 1월 9일 戊辰)

子	48년생 결정적인 때에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두렵다. 60년생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고 보낸 대로 돌아올 것이다. 72년생 전혀 다른 양상으로 비화 되리라. 84년생 사소함에 얽매이지 말고 대의를 따라라. 행운의 숫자 : 68, 15	午	42년생 다시 본원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맞이한다. 54년생 버티면 더 견고해질 것이다. 66년생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야 파악할 수 있다. 78년생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모두 다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 36, 28
丑	49년생 의심스런 인연이니 경계심을 버리지 마라. 61년생 현 상 태대로 실행한다면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음을 알라. 73년생 저 구성을 믿 선택이 아니라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85년생 재수가 좋아서 돈 좀 들어올 수다. 행운의 숫자 : 43, 78	未	43년생 바야흐로 길성을 향해 진입하는 길목에 놓여 있다. 55년생 성공의 문턱에 와 있으니 맞이할 준비를 하라. 67년생 오로지 실력 대 실력끼리의 대응 관계에 놓일 것이다. 79년생 상당히 놀라는 일이 생길 수이니라. 행운의 숫자 : 21, 61
寅	50년생 긍정적인 사고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리라. 62년생 북덕성이 멀리서부터 비추고 있으니 상당한 결실을 도출하는 형세로다. 74년생 실재보다 훨씬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86년생 정리하고 단장해 보자. 행운의 숫자 : 63, 57	申	44년생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56년생 가까스로 반전되는 마당에 이르고 있다. 68년생 아무런 이상도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80년생 다소 허한 조절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니라. 행운의 숫자 : 87, 91
卯	51년생 험들기는 하지만 거들어 주는 이도 있다. 63년생 일시적인 정세 현상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면기 어렵겠다. 75년생 거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위력이 지대하다. 87년생 대충 넘어가도 될 문제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7, 69	酉	45년생 여건과 어울려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57년생 그대로 뒤져서 반복한다면 손재수를 부를 뿐이다. 69년생 결과적으로 그 어느 것도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81년생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정점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50, 03
辰	40년생 일체의 기존 가치관을 뒤엎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52년생 과거의 잣대로 재려한다면 모순이다. 64년생 반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76년생 확실히 알게 되리라. 88년생 살피고 들어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5, 82	戌	46년생 난관은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 58년생 형상 너머에 있는 바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아쉽다. 70년생 예정된 절차대로만 이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82년생 선택을 잘못하면 역전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4, 96
巳	41년생 진행되고 있는 현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53년생 순류를 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65년생 기본적 가치는 불변한다는 것을 알라. 77년생 추진하면 성사될 것이다. 89년생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95, 75	亥	47년생 평소대로 잘 관리해 두었다면 지금 활용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르렀다. 59년생 총동원해야 성사시킬 수 있다. 71년생 상 당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가타이 집힐 것이다. 83년생 합리적이야 선택력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0, 5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